

패션스페셜리스트에 對한 認識과 選好⁺

金 順 粉

大邱大學校 衣裳디자인學科

Recognition and Preference for Fashion Specialist⁺

Soon Boon Kim

Dept. of Fashion Design, Taegu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recognition of and the preference for a fashion specialist among students from 4-year and 2-year colleges in Taegu, in order to provide basic data for the effective management methods for the students.

The objects of the survey were students in Taegu and Kyungbuk province; 287 students from 4-year colleges and 430 students from 2-year colleges, making the total of 717 students. The survey tool was a questionnaire, which consists of 7 general questions, 7 major curriculum related questions, and 6 questions regarding the information about a fashion specialist, and students career plan. It also contains 3-level Licurt type questionnaire on the recognition of and the preference for a fashion specialist from 20 professional fields. SPSS is used for frequency, percentage, average, standard deviation, χ^2 -test and ANOVA.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1. The students' motivation in choosing their major as clothing and fashion design was out of independent career plan (86.7%). They were quite content with their major but were unsatisfactory with the current curriculum.
2. The subjects students thought necessary in preparing to be a fashion specialist were pattern, clothing construction (40.1%), clothing design (33.7%), and fashion marketing (18.9%). The answer to the question about the most important subject in the future was fashion marketing (57.2%).
3. What students consider most in choosing a job was aptitude and ability (70.8%). The most preferable clothing types that students want to work with after graduation were womens clothing (52.1%) and wedding dress (18.1%).
4. The means of getting information on a fashion specialist were magazines or broadcasting (72%) and school lectures (20.6%), and there was a significant deference among colleges.
5. Fashion coordinator was the highest recognized specialist (2.64) and the lowest was fashion converter (1.23) among other fashion specialists. 4-year college students had higher recognition in all areas (20 areas) than 2-year college students, and there was a significant deference among colleges in 20 areas.

+ 이 논문은 1999학년도 대구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한 논문임

6. Fashion designer received the highest preference (2.60) and fashion converter received the lowest (1.42). The fashion specialists that 4-year college students preferred were textile designer, fashion merchandiser, and fashion buyer, and those that 2-year college students preferred were fashion designer, fashion coordinator, fashion photographer, fashion model, and needleworker. There was a significant deference among colleges.

I. 서론

우리나라의 섬유산업은 국내 총 수출의 약 12%를 점하고 있어 99년도에도 우리나라 최대의 무역 흑자 산업이며 또한 세계 5위의 섬유수출국의 지위를 갖고 있다(이재덕, 2000). 대구지역을 비롯, 전국 언론의 한 부분을 차지하는 “밀라노 프로젝트”는 공식 명칭이 “대구·경북지역 섬유산업육성 방안”이다. 이는 세계적 경쟁력의 모델로서 이태리 밀라노를 택하여 대구가 동양의 밀라노가 될 수 있도록 지역산업의 육성을 통하여 전국산업의 발전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서 이는 섬유직물산업의 첨단 고부가가치화 및 의류패션산업의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서태일, 2000). 이에 따라 지역대학과 관련학과는 지역발전을 위한 “밀라노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발전을 위하여 지역의 산업수요에 부응하는 우수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목표로 교육과 연구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 지역의 섬유·의류패션 관련 전공자들에 대한 관심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패션스페셜리스트는 패션산업분야의 전문가를 말하며 패션산업은 upstream에서 downstream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별로 전문적인 지식, 감각, 기술을 가진 전문가를 필요로 한다. 김준범, 이인자(1996)의 연구에서 국내의류업체에서는 패션전문직종의 업무와 역할에 대한 전문화와 세분화가 아직 미흡하다는 문제점을 지적하였으며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전문인력 및 전문부서의 활성화로 기업구조조정을 통한 경쟁력과 제품의 차별화, 고부가가치화가 요구된다고 하였다.

패션스페셜리스트가 현실적으로 완벽하게 전문화되는 나라는 흔하지 않으나, 패션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러한 전문직종들이 개발되어 상호보완이 이루어짐으로써 완성도가 높은 고감도의 상품을 기획, 판매

하는 감각산업으로서의 성장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패션스페셜리스트를 위한 교육이 대학교나 학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체계적인 교육방법의 미비와 복식산업계의 비협조로 그다지 큰 성과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도규희, 1994).

뿐만 아니라 패션스페셜 리스트 영역 가운데에는 전문적으로 공부하고 경험을 가진 사람이 부족한 분야가 있는 것에 반해 공급과잉인 분야도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착안하여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섬유·패션산업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대구지역을 중심으로 의류·패션관련 전공자들의 패션스페셜리스트에 대한 인식과 선호를 파악하여 관련 교육기관과 산업체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본 연구를 시도하였다.

II.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및 기간

조사대상자는 대구·경북지역을 중심으로 섬유관련 학과를 제외한 의류·패션관련 전공학과와 4년제 대학과 2년제 전문대학의 재학생을 중심으로 하였다. 재학생은 전공시작학년(4년제는 2학년, 2년제는 1학년)과 졸업학년(4년제는 4학년, 2년제는 2학년)을 중심으로 하였는데 그 이유는 전공교과 수학과정에서 인식 및 선호에 대한 변화가 어느정도 있었는가를 보고자 하였다. 조사에 응한 사람은 6개 4년제 대학 재학생 287명(4학년 138명, 2학년 149명), 4개 2년제 대학 재학생 430명(2학년 226명, 1학년 204명)으로 총 717명이었으며, 성별로는 남학생 92명, 여학생 625명이었다(표 1). 조사기간은 2000년 5월 22일~6월 10일 사이에 행해졌다. 조사방법은 질문지법을 사용하였다.

<표 1> 조사대상자

대학구분		
4년제	2학년	150 (20.9)
	4학년	137 (19.1)
	계	287 (40.0)
2년제	1학년	204 (28.5)
	2학년	226 (31.5)
	계	430 (60.0)
성 별		
남		92 (12.8)
여		625 (87.2)
계		717(100.0)
아르바이트 경험		
있 다		196 (27.3)
없 다		521 (72.7)
기업체연수경험		
있 다		41 (5.7)
없 다		676 (94.3)
아르바이트 내용		
판매사원		124 (63.3)
디자인실		19 (9.7)
생산공장		21 (10.7)
기 타		32 (16.3)

2. 조사내용 및 방법

질문지의 내용은 의류·패션전공학생들에 대한 일반적인 문항 7문항, 전공교과에 관련된 7문항, 패션스페셜리스트에 관한 정보 및 진로에 관련된 6문항과 그밖에 전문분야별 20분야의 패션스페셜리스트에 대한 이해 및 인식의 정도와 그에 대한 관심과 선호, 등은 3단계, 전공 및 교과만족도는 5단계 척도로서 체크하게 하였으며 본인이 희망하는 패션스페셜리스트에 대한 자유응답 1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전문분야별 20분야의 패션스페셜리스트는 참고문헌(이호정, 1997)을 참조하여 연구자가 보충하였다.

3. 자료처리

자료는 SPSS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 및 백

분율을 산출하였으며 4년제 대학 대 2년제 대학 전체와 대학별 전공시작 학년 대 졸업학년 등에 대한 유의차를 검증하기 위하여 문항에 따라 교차분석을 하였으며 또한 패션스페셜리스트에 대한 인식 및 선호도 등은 분산분석을 실시하였고, 문항별 무응답은 Missing으로 처리하였다.

Ⅲ. 결과 및 고찰

1. 전공교과관련내용

입학당시 의류·패션전공학과의 선택동기는 <표 2>와 같다. 대학간 차이없이 전체의 86.7%가 본인의 주체적인 진로 계획에 의한 것이었으며 전공선택 및 현 교과과정에 대한 만족정도는 <표 3>과 같이 의류·패션전공 선택의 만족도는 5점척도 평균3.46(4년제) 3.42(2년제)로서 대체로 만족하는 편으로 대학간 차이는 없었으며, 2년제보다 4년제가 조금 더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재 교육받고 있는 교과과정에 대한 만족도는 5점척도 평균 2.74(4년제), 2.80(2년제)으로 다소 불

<표 2> 입학시 의류 전공 선택 동기

구 분	4년제	2년제	전 체
본인 주체적 진로 계획	247 (86.7)	371 (86.7)	618 (86.7)
가족·친지 권유	19 (6.7)	22 (5.1)	41 (6.7)
선생님 권유	4 (1.4)	4 (1.4)	8 (1.1)
친구 권유	7 (2.5)	17 (4.0)	24 (3.4)
기타	8 (2.8)	14 (3.3)	22 (3.1)
계	285(100.0)	428(100.0)	713(100.0)
df=4	$\chi^2=2316$	N.S	

<표 3> 전공선택 및 교과과정 만족도

구 분	4년제		2년제		F
	M	SD	M	SD	
전공만족도	3.462	.857	3.419	.942	1.801
교과만족도	2.740	.820	2.801	.817	.494

만족한 편이었다. 불만족 이유는 <표 4>와 같이 조사 대상자 전체로는 '교과목 내용이 내가 바라는 것과 다르다'가 47.7%로 가장 많고 '나의 진로에 필요한 과목이 없다', '전공과목이 어렵다'가 각각 18.6%, 18.4%로 많았으며 대학간 의미있는 차이는 없었다. 이를 볼 때 학생들은 특정 교과목에 대한 기대와 이해부족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특히 2년제 대학에서 그 현상이 더욱 컸다. 또한 '본인의 진로에 필요한 전공과목이 없다'라고 응답한 학생이 18.6%나 되어 각 학과의 교과목 구성에 어려움을 엿볼 수 있다. '전공과목의 수강이 어렵다.'라고 답한 사례도 18.4%나 되어 본인 희망에 의해 선택하고 전공에 대한 만족도도 높지만 의류·패션전공은 수학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이 학문이 이론과 실기를 겸하면서 인문, 자연과학, 예술분야의 총합적 학문의 성격으로 다양한 전문성을 요구하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희망하는 패션전문인이 되기 위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교과목을 2순위까지 정리하면 <표 5>와 같다.

제1순위에서는 패턴·의복구성(40.1%), 복식디자인(33.7%), 패션마케팅(18.9%)의 순으로 대학간 의미있는 차이는 없었으나, 제2순위의 집계에서는 전체적으로는 역시 패턴·의복구성이 1위인 반면 2년제에서는 복식디자인이 가장 높게 나타나 대학간 의미있는 차이가 있었다. 공통적인 결과는 패턴·의복구성 교과목은 어떠한 패션스페셜리스트가 되기 위해서도 기본적으로 꼭 필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현재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교과목은 <표 6>과 같으며, 패턴·의복구성(49.3%), 복식디자인(27.4%), 패션마케팅(16.9%)의 순으로, 희망하는 패션스페셜리스트가 되기 위하여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교과목과 같았다.

미래에 가장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되는 교과목은 <표 7>과 같았으며, 그 결과는 패션마케팅(57.2%), 피복

<표 4> 교과과정 불만족 이유

구 분	4년제	2년제	전 체
좋아하는 과목 부재	4 (2.6)	7 (3.5)	11 (3.1)
나의 진로에 필요한 전공과목 부재	31 (20.4)	35 (17.3)	66 (18.6)
전공과목이 어렵다	28 (18.4)	37 (18.3)	65 (18.4)
과목내용이 내가 바라는 것과 다르다	63 (41.4)	106 (52.5)	169 (47.7)
기타	26 (17.1)	17 (8.4)	43 (12.1)
계	152 (42.9)	202 (57.1)	354(100.0)
df=4	$\chi^2=8.233$	N.S	

<표 5> 희망하는 패션 전문인이 되기 위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과목

구 분	1순위			2순위		
	4년제	2년제	전 체	4년제	2년제	전 체
복식디자인	100 (35.8)	136 (32.2)	236 (33.7)	75 (27.1)	148 (35.4)	223 (32.1)
패턴·의복구성	113 (40.5)	168 (39.9)	281 (40.1)	99 (35.7)	137 (32.8)	236 (34.0)
복식 사회심리학	7 (2.5)	8 (1.9)	15 (2.1)	28 (10.1)	13 (3.1)	41 (5.9)
패션마케팅	45 (16.1)	87 (20.7)	132 (18.9)	45 (16.2)	79 (18.9)	124 (17.8)
복식사	4 (1.4)	14 (3.3)	18 (2.6)	9 (3.2)	16 (3.8)	25 (3.6)
복식미학	3 (1.1)	5 (1.2)	8 (1.1)	7 (2.5)	11 (2.6)	18 (2.6)
피복과학	7 (2.5)	3 (0.7)	10 (1.4)	14 (5.1)	14 (3.3)	28 (4.0)
계	279 (39.9)	421 (60.1)	700(100)	277 (39.9)	418 (60.1)	695 (100)
df=6	$\chi^2=8.903$	N.S		$\chi^2=19.888$	P<.01	

<표 6>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과목

구 분	4년제	2년제	전 체
복식디자인	82 (29.8)	107 (25.7)	189 (27.4)
패턴·의복구성	117 (42.5)	224 (53.8)	341 (49.3)
복식 사회심리학	8 (2.9)	6 (1.4)	14 (2.0)
패션마케팅	52 (18.9)	65 (15.6)	117 (16.9)
복식사	6 (2.2)	7 (1.7)	13 (1.9)
복식미학	4 (1.5)	3 (0.7)	7 (1.0)
피복과학	6 (2.2)	4 (1.0)	10 (1.4)
계	275 (39.8)	416 (60.2)	691 (100)
df=6	$\chi^2=10.915$	NS	

<표 7> 미래에 가장 중요할 것이라 생각되는 과목

구 분	4년제	2년제	전 체
복식디자인	25 (9.1)	52 (12.6)	77 (11.2)
패턴·의복구성	18 (6.5)	35 (8.5)	53 (7.7)
복식 사회심리학	27 (9.8)	25 (6.1)	52 (7.5)
패션마케팅	153 (55.4)	241 (58.4)	394 (57.2)
복식사	0 (0)	8 (1.9)	8 (1.2)
복식미학	9 (3.3)	14 (3.4)	23 (3.3)
피복과학	44 (15.9)	38 (9.2)	82 (11.9)
계	276 (40.1)	413 (59.9)	689(100.0)
df=6	$\chi^2=17.634$	P< .01	

과학(11.9%)의 순이었으며 이는 김혜경(2000)의 선행연구와도 같은 결과였다. 미래의 중요교과목에 대해서는 P<.01 수준에서 대학간의 의미있는 차이가 있었는데, 1위는 패션마케팅(4년제 - 55.4%, 2년제 - 58.4%)으로 같고, 그 다음이 4년제는 피복과학(15.9%), 복식사회심리학(9.8%), 2년제는 복식디자인(12.6%), 피복과학(9.2%)순

<표 9> 직업 선택 시 우선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구 분	4년제	2년제	전 체
내가 좋아하는 일과 관련 있는 직업선택	56 (20.0)	104 (24.4)	160 (22.7)
나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	208 (74.3)	292 (68.5)	500 (70.8)
나의 적성과 능력보다는 사회적인 인정	6 (2.1)	12 (2.8)	18 (2.5)
경제적 수입	10 (3.6)	18 (4.2)	28 (4.6)
계	280 (39.7)	426 (60.3)	706(100.0)
df=3	$\chi^2=2.721$	NS	

이었다. 이는 현재나 미래에서 학과목 자체의 중요도가 달라진다고 해석되기보다는 배움의 과정에서 시기에 따라 중요정도가 다르게 생각되기 때문이라고 해석되며, 또한 패턴·의복구성은 패션스페셜리스트가 되기 위해서는 전공의 기본과정에서 필수적이라는 의미로 사료되기도 한다.

2. 패션스페셜리스트에 관한 정보 및 진로관련내용

<표 8>에서와 같이 직업 선택시 가장 중요시 생각되는 것은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70.8%), 내가 좋아하는 일(22.7%), 경제적 수입(4.6%)의 순위로 우선적으로 생각하였으며, 대학간의 의미있는 차이는 없었다.

의류·패션분야 진로에 대한 의지는 <표 9>와 같다. 전체적으로 '꼭 그렇게 하겠다' 27.9%를 포함하여 '그렇게 하겠다' 47.6%로 75.5%가 의류·패션분야의 진로를 희망하고 있었다.

졸업후 일하고 싶은 의복분야는 <표 10>과 같이 나

<표 8> 의류 패션 분야로의 진로

구 분	4년제	2년제	전 체
전혀 그렇지 않다	2 (0.7)	13 (3.0)	15 (2.1)
다소 그렇지 않다	21 (7.3)	35 (8.1)	56 (7.8)
그저 그렇다	36 (12.5)	69 (16.0)	105 (14.6)
그렇다	149 (51.9)	192 (44.7)	341 (47.6)
꼭 그렇게 하겠다	79 (27.5)	121 (28.1)	200 (27.9)
계	287 (40.0)	430 (60.0)	717(100.0)
df=4	$\chi^2=7.977$	NS	

<표 10> 졸업후 일하고 싶은 의복 분야 (취업 희망 분야)

구 분	4년제	2년제	전 체
남성복	19 (6.9)	26 (6.4)	45 (6.6)
여성복	141 (51.5)	213 (52.5)	354 (52.1)
아동복	12 (4.4)	19 (4.7)	31 (4.6)
니 트	8 (2.9)	11 (2.7)	19 (2.8)
란제리	11 (4.0)	16 (3.9)	27 (4.0)
수영복	1 (0.4)	2 (0.5)	3 (0.4)
스포츠	16 (5.8)	20 (4.9)	36 (5.3)
웨 딩	42 (15.3)	81 (20.0)	123 (18.1)
특수복 (노인, 임부)	2 (0.7)	2 (0.5)	4 (0.6)
한 복	10 (3.6)	5 (1.2)	15 (2.2)
기 타	12 (4.4)	11 (2.7)	23 (3.4)
계	274 (40.3)	406 (59.7)	680(100.0)
df = 10	$\chi^2 = 8.225$	NS	

타났는데 여성복(52.1%)이 단연 제일 많고, 그 다음이 웨딩(18.1%), 남성복(6.6%), 스포츠웨어(5.3%)순이었으며 대학간 의미있는 차이는 없었다. 특이한 점은 웨딩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에 관련된 교과목의 개발과 진로지도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보아지며, 기타 취업희망분야의 내용은 침장·침구, 무대복, 캐주얼 웨어 등이었다.

앞으로 본인이 원하는 패션스페셜리스트가 되기 위하여 학교 수업 외에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준비

내용을 순서대로 2순위까지 적어낸 결과는 <표 11>과 같다.

제1순위에서 조사대상자 전체응답은 전공관련 서적 수집 및 읽기(24.4%), 학원 수강(22.5%), 패션쇼·트렌드 설명회 참석(16.8%)순이었으나 교차분석을 통한 대학간의 비교는 4년제는 학원 수강(24.9%), 패션쇼 참석(18.2%), 어학연수(15.8%)순이었고, 2년제는 전공관련 서적 수집 읽기(30.2%), 학원 수강(21.0%), 패션쇼·트렌드설명회 참석(15.9%)의 순으로 의미있는 차이(P<.0001)가 있었다. 제2순위에서도 전체응답은 패션쇼·트렌드설명회 참석(20.9%), 학원 수강(17.9%), 전공관련 서적 수집 읽기의 순으로 2년제 순위와 같았는데 비해 4년제에서는 패션쇼·트렌드 설명회 참석(17.4%), 어학연수(16.4%), 산업체연수(14.5%), 학원 수강, 진학·유학준비(13.5%)순으로 대학간 의미있는 차이가(P<.01) 있었다. 4년제는 2년제에 비해 진학이나 연수등의 배움에 대한 희망이 더 많았다. 이는 2년제 전문대학이 취업에 목적을 둔 본래의 교육목표와 맞아 떨어진다고 볼 수 있으며, 그 방향으로 의도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패션스페셜리스트에 관한 지식정보경로는 <표 12>와 같으며 전체적으로 잡지나 방송을 통해(72.1%) 가장 많은 정보를 얻고 있었고, 다음이 학교강의시간(20.6%), 친구나 선후배(4.4%)였으며 대학간에 있어서는 의미있는 차이가 있었는데(P<.0001) 4년제가 2년제에

<표 11> 패션스페셜리스트가 되기위해 계획한 준비내용

구 분	1순위			2순위		
	4년제	2년제	전 체	4년제	2년제	전 체
학원, 연구원수강	52 (24.9)	69 (21.0)	121 (22.5)	28 (13.5)	67 (20.7)	95 (17.9)
관련서적수집, 읽기	32 (15.3)	99 (30.2)	131 (24.4)	26 (12.6)	52 (16.1)	78 (14.7)
선배에게 정보 얻기	3 (1.4)	4 (1.2)	7 (1.3)	9 (4.3)	20 (6.2)	29 (5.5)
패션쇼트렌드설명회참석	38 (18.2)	52 (15.9)	90 (16.8)	36 (17.4)	75 (23.2)	111 (20.9)
전시회, 박물관 관람	8 (3.8)	15 (4.6)	23 (4.3)	16 (7.7)	27 (8.4)	43 (8.1)
산업체연수	25 (12.0)	31 (9.5)	56 (10.4)	30 (14.5)	30 (9.3)	60 (11.3)
어학연수	33 (15.8)	19 (5.8)	52 (9.7)	34 (16.4)	27 (8.4)	61 (11.5)
진학, 유학준비	18 (8.6)	39 (11.9)	57 (10.6)	28 (13.5)	25 (7.7)	53 (10.0)
계	209 (38.9)	328 (61.1)	537(100.0)	207 (39.1)	323 (60.9)	530
df = 7	$\chi^2 = 28.273$	P< .0001		$\chi^2 = 22.005$	P<.01	

<표 12> 패션스페셜리스트에 대한 정보경로

구 분	4년제	2년제	전 체
학과전공오리엔테이션	8 (3.1)	10 (2.8)	18 (2.9)
강의시간	69 (26.8)	58 (16.1)	127 (20.6)
잡지나 방송	162 (63.0)	283 (78.6)	445 (72.1)
친구나 선후배	18 (7.0)	9 (2.5)	27 (4.4)
계	257 (41.7)	360 (58.3)	617(100.0)
df=3	$\chi^2=20.452$	P<.0001	

비해 강의시간(26.8%)과 친구나 선후배(7.0%)를 통해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있었다.

3. 패션스페셜리스트에 대한 인식과 선호

패션스페셜리스트에 대한 명칭과 하는 일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표 13>에서와 같이 패션코디네이터가 (2.64) 가장 인식정도가 높았으며, 패션컨버터가(1.24)로 가장 낮았다. 대학간 인식도의 차이는 4년제가 2년제 보다 패션스페셜리스트 모든 분야(20가지)에서 인식정도가 높았으며, 패션모델, 패션컨버터, 봉제사, 인터넷 사업가, 패션사진가를 제외한 15분야에서 의미있는 인식정도의 차이가 있었다.

대학간에 있어서는 4년제 대학은 패션디자이너에 대한 인식정도(2.73)가 가장 높았고, 2년제 대학은 패션코디네이터(2.60)가 가장 높았다. 전반적으로 인식정도가 높은 분야는 순서대로 패션코디네이터, 패션모델, 패션디자이너, 디스플레이디자이너 순이었다.

본인이 좋아하는 패션스페셜리스트분야에 대한 선호의 정도는 <표 14>와 같다. 조사대상자 전체가 가장 선호하는 패션스페셜리스트는 패션디자이너(2.60), 패

<표 13> 패션스페셜리스트에 대한 인식도(대학간)

구 분	4년제		2년제		전 체		유의확률 F
	M	SD	M	SD	M	SD	
패션디자이너	2.73	.50	2.52	.61	2.60	.58	24.29***
모델리스트	2.25	.71	1.93	.72	2.06	.73	33.78***
스타일리스트	2.12	.71	1.95	.80	2.02	.77	7.56**
패션머천다이지어	2.19	.79	1.59	.79	1.83	.84	95.23***
패션코디네이터	2.71	.51	2.60	.60	2.64	.57	5.97*
디스플레이디자이너	2.62	.59	2.46	.71	2.52	.67	10.73***
샵마스터(매장관리자)	2.33	.77	2.03	.81	2.15	.81	23.32***
패션바이어	1.92	.75	1.45	.67	1.64	.74	74.19***
약세사리디자이너	2.35	.67	2.24	.71	2.28	.69	4.21*
텍스타일디자이너	2.31	.71	1.90	.79	2.07	.78	49.43***
패션모델	2.67	.57	2.61	.61	2.63	.59	2.02
패션저널리스트	1.86	.76	1.55	.73	1.67	.76	29.56***
컬러리스트	1.67	.74	1.49	.68	1.56	.71	10.81***
패션컨버터	1.27	.56	1.22	.50	1.24	.52	1.42
봉제사	2.28	.72	2.27	.74	2.28	.73	.02
소매점경영	1.80	.79	1.62	.74	1.69	.77	9.06**
패션사진가	2.13	.75	2.05	.75	2.08	.76	1.82
패션분석가	1.71	.75	1.57	.72	1.63	.73	5.86*
인터넷사업가	1.67	.76	1.56	.71	1.61	.73	3.43
의류패션교육자	2.38	.70	2.01	.78	2.16	.77	40.65***

*P<.05 **P<.01 ***P<.001

〈표 14〉 패션스페셜리스트에 대한 선호정도(대학간)

구 분	4년제		2년제		전 체		유의확률 F
	M	SD	M	SD	M	SD	
패션디자이너	251	.56	266	.50	260	.53	13.69***
모델리스트	1.99	.61	1.98	.65	1.98	.63	.03
스타일리스트	2.25	.60	2.24	.68	2.24	.65	.04
패션머천다이어	2.10	.70	1.85	.68	1.95	.70	21.56***
패션코디네이터	2.50	.59	2.65	.57	2.59	.58	11.71***
디스플레이디자이너	2.46	.61	2.52	.62	2.50	.62	1.23
샵마스터(매장관리자)	2.00	.73	1.97	.70	1.98	.71	.22
패션바이어	1.78	.66	1.64	.66	1.70	.66	6.84**
액세서리디자이너	2.06	.67	2.14	.72	2.11	.70	1.91
텍스타일디자이너	1.81	.68	1.60	.61	1.68	.65	18.05***
패션모델	1.44	.65	1.66	.75	1.57	.72	16.04***
패션저널리스트	1.76	.73	1.72	.64	1.74	.68	.69
컬러리스트	1.71	.67	1.72	.63	1.71	.64	.03
패션컨버터	1.39	.57	1.43	.55	1.42	.56	.69
봉제사	1.53	.63	1.64	.67	1.59	.66	4.85*
리테일머천다이어	1.81	.70	1.81	.71	1.81	.70	.00
패션사진가	1.79	.76	1.93	.79	1.87	.75	6.05*
패션분석가	1.80	.69	1.77	.66	1.78	.67	.20
인터넷사업가	1.97	.70	1.91	.73	1.93	.72	1.26
의류패션교육자	1.97	.70	1.94	.70	1.95	.70	.38

*P<.05 **P<.01 ***P<.001

션코디네이터(2.50), 디스플레이디자이너(2.50), 스타일리스트(2.24) 순이었다. 대학간의 비교에서 패션머천다이어, 텍스타일디자이너, 패션모델, 패션디자이너, 패션코디네이터, 패션바이어, 패션사진가, 봉제사 등의 분야에서 P<.05 수준에서 의미있는 차이가 있었다. 4년제 학생들이 더 선호하는 분야는 패션머천다이어, 패션바이어, 텍스타일디자이너였으며, 2년제 학생이 더 선호하는 분야는 패션디자이너, 패션코디네이터, 패션사진가, 패션모델, 봉제사 분야였다.

2년제, 4년제 모두에서 가장 선호하지 않는 분야는 인식도가 가장 낮은 패션컨버터(1.42)였다.

부가적 관심으로 전공교육이 패션스페셜리스트에 대한 인식과 선호에 어느 정도의 영향이 있는가를 보기 위하여 전공 시작학년과 졸업 학년을 대상으로 비교해 보았다. 2년제는 1학년 : 2학년, 4년제는 2학년 :

4학년으로 비교하였다.

패션스페셜리스트에 대한 시작학년과 졸업학년의 인식도의 비교는 〈표 15〉, 〈표 16〉과 같으며 편의상 유의차가 인정되는 분야만 도표로 나타내었다.

2년제 학생들의 시작학년과 졸업학년 사이의 인식도의 변화는 〈표 15〉와 같이 패션모델, 패션바이어, 패션사진가, 패션코디네이터, 액세서리디자이너의 5분야에서 의미있는 차이가 없었으며, 그 밖의 15분야에서는 모두 졸업학년때의 인식정도가 높았고 4년제 학생들의 시작학년과 졸업학년의 인식도의 변화는 〈표 16〉에서와 같이 12분야에서 의미있는 차이가 있었으며, 패션모델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졸업학년의 인식도가 높았다. 유의차가 인정되지 않은 8분야도 졸업학년의 인식도가 높았다. 이는 전공교육 이수결과로 전문 분야에 대한 이해와 인식의 정도가 높아진 결과라 하

<표 15> 패션스페셜리스트에 대한 인식비교(2년제, 시작-졸업)

구 분	4년제		2년제		전 체		유의확률 F
	M	SD	M	SD	M	SD	
패션디자이너	240	.63	262	.57	252	.61	13.55***
모델리스트	1.81	.70	2.03	.71	1.93	.72	10.322***
스타일리스트	1.76	.77	2.11	.80	1.95	.80	20.439***
패션머천다이어	1.26	.58	1.88	.83	1.59	.79	75.223***
디스플레이디자이너	233	.72	257	.68	246	.71	11.991***
샵마스터(매장관리자)	1.91	.81	2.13	.80	2.03	.81	7.877**
텍스타일디자이너	1.78	.80	2.01	.76	1.90	.79	9.19**
패션저널리스트	1.45	.66	1.63	.78	1.55	.73	6.484**
컬러리스트	1.31	.55	1.64	.74	1.49	.68	26.214***
패션컨버터	1.16	.46	1.27	.53	1.22	.50	4.643*
봉제사	2.19	.74	2.35	.72	2.27	.74	4.544*
소매점경영	1.53	.71	1.70	.76	1.62	.74	5.855*
패션분석가	1.46	.64	1.67	.77	1.57	.72	8.839**
인터넷사업가	1.45	.62	1.67	.76	1.56	.71	10.657***
의류패션교육자	1.86	.74	2.13	.79	2.01	.78	13.045***

*P<.05 **P<.01 ***P<.001

<표 16> 패션스페셜리스트에 대한 인식비교(4년제, 시작-졸업)

구 분	4년제		2년제		전 체		유의확률 F
	M	SD	M	SD	M	SD	
모델리스트	2.11	.72	2.40	.67	2.25	.71	12.223***
패션머천다이어	2.05	.77	2.34	.78	2.19	.79	9.857**
샵마스터(매장관리자)	2.16	.78	2.50	.71	2.33	.77	14.462***
패션바이어	1.81	.72	2.04	.77	1.92	.75	7.106**
패션모델	2.75	.49	2.59	.63	2.67	.57	5.973*
컬러리스트	1.56	.69	1.79	.78	1.67	.74	6.744**
패션컨버터	1.15	.41	1.39	.66	1.27	.56	14.027***
봉제사	2.12	.70	2.45	.70	2.28	.72	15.438***
소매점경영	1.65	.73	1.96	.82	1.80	.79	11.002***
패션분석가	1.56	.68	1.87	.79	1.71	.75	11.847***
인터넷사업가	1.49	.68	1.86	.80	1.67	.76	17.164***
의류패션교육자	2.24	.75	2.53	.61	2.38	.70	12.336***

*P<.05 **P<.01 ***P<.001

겠다. 그러나 패션모델만은 시작학년이 더 높은 인식도로 나타난 것은 의외로써 패션모델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이 전공교육으로 인하여 전문직업으로 인식됨

에 따른 신중한 응답의 결과로 해석된다.

패션스페셜리스트에 대한 시작학년과 졸업학년의 선호도의 비교는 <표 17>, <표 18>과 같다. 2년제 대학

<표 17> 패션스페셜리스트에 대한 선호도의 비교(2년제, 시작: 졸업)

구 분	4년제		2년제		전 체		유의확률 F
	M	SD	M	SD	M	SD	
패션디자이너	2.73	.48	2.60	.52	2.66	.50	7.407**
패션머천다이어	1.66	.64	2.01	.68	1.85	.68	27.876***
디스플레이디자이너	2.39	.70	2.63	.52	2.52	.62	15.792***
텍스타일디자이너	1.52	.61	1.66	.61	1.60	.61	4.932*
봉제사	1.54	.66	1.72	.67	1.64	.67	7.247**

*P<.05 **P<.01 ***P<.001

<표 18> 패션스페셜리스트에 대한 선호도의 비교(4년제, 시작: 졸업)

구 분	4년제		2년제		전 체		유의확률 F
	M	SD	M	SD	M	SD	
샵마스터(매장관리자)	1.90	.70	2.10	.75	2.00	.73	5.007*
의류패션교육자	1.88	.69	2.08	.71	1.97	.70	6.138**

*P<.05 **P<.01 ***P<.001

<표 19> 본인이 희망하는 패션스페셜리스트

구 분	1순위			2순위		
	4년제	2년제	전체	4년제	2년제	전 체
패션디자이너	103(38.7)	166(43.5)	269(41.5)	28(10.5)	47(12.4)	75(11.6)
모델리스트	12(4.5)	14(3.7)	26(4.0)	12(4.5)	18(4.7)	30(4.7)
스타일리스트	13(4.9)	18(4.7)	31(4.8)	26(9.8)	37(9.8)	63(9.8)
패션머천다이어(MD)	29(10.9)	8(2.1)	37(5.7)	24(9.0)	14(3.7)	38(5.9)
패션 코디네이터	29(10.9)	77(20.2)	106(16.4)	37(13.9)	95(25.1)	132(20.5)
디스플레이 디자이너	18(6.8)	27(7.1)	45(6.9)	38(14.3)	55(14.5)	93(14.4)
샵 마스터	13(4.9)	11(2.9)	24(3.7)	14(5.3)	13(3.4)	27(4.2)
패션 바이어	4(1.5)	3(0.8)	7(1.1)	7(2.6)	3(0.8)	10(1.6)
액세서리 디자이너	2(0.8)	11(2.9)	13(2.0)	13(4.9)	21(5.5)	34(5.3)
텍스타일 디자이너	5(1.9)	1(0.3)	6(0.9)	13(4.9)	6(1.6)	19(2.9)
패션모델	1(0.4)	7(1.8)	8(1.2)	2(0.8)	4(1.1)	6(0.9)
패션 저널리스트	7(2.6)	2(0.5)	9(1.4)	7(2.6)	4(1.1)	11(1.7)
컬러리스트	1(0.4)	3(0.8)	4(0.6)	3(1.1)	3(0.8)	6(0.9)
패션컨버터	0(0)	0(0)	0(0)	1(0.4)	0(0)	1(0.4)
봉제사	1(0.4)	4(1.0)	5(0.8)	5(1.9)	11(2.9)	16(2.5)
리테일 머천다이어	5(1.9)	7(1.8)	12(1.9)	7(2.6)	8(2.1)	15(2.3)
패션사진가	3(1.1)	6(1.6)	9(1.4)	5(1.9)	9(2.4)	14(2.2)
패션분석가	2(0.8)	0(0)	2(0.3)	6(2.3)	4(1.1)	10(1.6)
인터넷 이용 패션 사업가	5(1.9)	8(2.1)	13(2.0)	7(2.6)	15(4.0)	22(3.4)
의류패션교육자	13(4.9)	9(2.4)	22(3.4)	11(4.1)	12(3.2)	23(3.6)
계	266(41.0)	382(59.0)	648(100)	266(41.2)	379(58.8)	645(100)
	df = 18	$\chi^2 = 56.224$	P< .0001	df = 19	$\chi^2 = 35.857$	P< .01

에 있어서 선호도의 의미있는 차이가 있는 분야는 패션디자이너, 텍스타일디자이너, 봉제사, 패션머천다이저, 디스플레이디자이너였다. 패션디자이너는 졸업학년에 오히려 시작학년보다 선호도가 떨어졌으나 다른 분야는 졸업학년에 선호도가 더 높아져 전공교육 이수후의 이해 및 인식정도에 따라 선호정도가 바뀐 것으로 보여진다.

4년제 대학의 경우는 전공시작학년보다 졸업학년에 더 선호하는 분야는 샵마스터와 의류패션교육자의 2분야만 의미있는 차이를 보였다. 그 밖에 유의차는 인정되지 않았지만, 졸업학년에 더 선호하는 분야는 컬러리스트, 패션컨버터, 소매점 경영, 패션분석가, 인터넷사업가, 패션코디네이터, 패션바이어였고 나머지 분야는 오히려 전공시작학년보다 선호도가 떨어졌다.

앞으로 본인이 희망하는 패션스페셜리스트를 순서대로 2순위까지 기록한 결과는 <표 19>와 같다. 전체적으로는 패션디자이너가(41.5%) 가장 많고 패션코디네이터(16.4%), 디스플레이디자이너(6.9%) 등이었으며 4년제는 패션디자이너(38.7%), 패션머천다이저(10.9%), 패션코디네이터(10.9%) 등이었고 2년제는 패션디자이너(43.5%), 패션코디네이터(20.2%), 디스플레이디자이너(7.1%) 등으로 대학간 의미있는 차이가 있었다. 이 같은 결과에서 볼 때 4년제 대학에서 패션머천다이저는 선호도도 높고 동시에 희망하는 전문직종으로 나타났다.

대구지역을 중심으로한 현장디자이너들의 직무실태에 관한 연구(김순분, 1999) 결과 현장의 패션디자이너들은 50%가 업무조건에 불만족하고 취업연령이 29세 미만이 83.3%인 현실을 감안할 때 가장 희망하는 패션스페셜리스트가 패션디자이너임은 생각할 여지를 준다.

IV. 결론 및 제언

1. 의류·패션학과의 선택동기는 본인의 주체적 진로 계획(86.7%)이었으며, 전공선택에 대체로 만족하는 편으로 대학간 의미있는 차이는 없었다.
2. 현 실행 교과과정에 대한 만족도는 다소 불만족한 편이었으며, 불만족이유는 '교과목내용이 내가 바

라는 것과 다르다'가 가장 많았다.

3. 패션스페셜리스트가 되기위해 꼭 필요한 과목은 대학간 유의차는 없었으며, 첫째, 패턴·의복구성(40.1%), 복식디자인(33.7%), 패션마케팅(18.9%)였고,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교과목도 패턴·의복구성, 복식디자인, 패션마케팅 순이었다. 그러나 미래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과목은 패션마케팅이었고, 대학간 의미있는 차이가 있었는데, 두 번째로 4년제는 피복과학, 2년제는 복식디자인이었다.
4. 직업선택시 가장 중요시 생각하는 것은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70.8%)이었고 의류·패션분야로의 진로에 대한 의지는 75.5%가 의류·패션분야로의 진로를 희망하였다. 졸업후 일하고 싶은 의복분야는 여성복(52.1%)이 가장 많았고, 다음이 웨딩(18.1%)분야였다.
5. 패션스페셜리스트에 대한 지식정보경로는 잡지나 방송(72%), 학교강의시간(20.6%)이었으며, 학교수업 외에 패션스페셜리스트가 되기위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준비내용은 4년제는 학원 수강(24.9%)이었고, 2년제는 전공관련 서적수집 및 읽기(30.2%)로 대학간 유의차가 있었다.
6. 조사대상 전체의 패션스페셜리스트에 대한 인식은 패션코디네이터가(264) 가장 인식정도가 높았으며 패션컨버터가(123) 가장 낮았다. 대학간 인식도의 차이는 4년제가 모든 분야(20가지)에서 인식정도가 높았으며 패션모델, 패션컨버터, 봉제사, 인터넷사업가, 패션사진가를 제외한 15종류에서 의미있는 인식정도의 차이가 있었다
7. 패션스페셜리스트에 대한 선호도는 패션디자이너가(260) 가장 선호도가 높았고 패션컨버터가(142) 가장 낮았다. 4년제가 2년제에 비해 더 선호하는 스페셜리스트는 패션머천다이저(2.10), 텍스타일디자이너(1.81), 패션바이어(1.78)였으며 2년제가 4년제에 비해 더 선호하는 패션스페셜리스트는 패션디자이너(2.66), 패션모델(1.66), 봉제사(1.64), 패션사진가(1.93), 패션코디네이터(2.65)였으며 대학간 의미있는 차이가 있었다.
8. 4년제 학생들의 패션스페셜리스트에 대한 인식도

의 변화는 20분야중 12분야에서 2학년 때보다 4학년 때에 더 잘 인식하고 있어 의미있는 차이가 있었다. 선호도에 있어서는 샵마스터와 의류·패션전공 교육자에서만 2학년 때보다는 4학년 때에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 의미있는 차이가 있었다.

9. 2년제 학생들의 패션스페셜리스트에 대한 인식의 변화는 패션모델, 패션바이어, 패션사진가, 패션코디네이터, 악세서리디자이너의 5분야에서 유의차가 없었으며, 그 밖의 15분야에서 모두 졸업학년때의 인식정도가 높았다. 선호도에 있어서는 패션디자이너, 텍스타일디자이너, 봉제사, 머천다이저, 디스플레이디자이너에서 유의차가 있었는데, 패션디자이너는 선호도가 더 낮아졌고, 나머지 다른 분야는 졸업학년에서 선호도가 더 높았다.

10. 본인이 되기를 희망하는 패션스페셜리스트는 4년제는 패션디자이너, 패션머천다이저, 패션코디네이터 순이었고 2년제는 패션디자이너, 패션코디네이터, 디스플레이디자이너 순으로 대학간 의미있는 차이가 있었다.

이상의 결과에서 지역의 섬유산업 육성방안, 일명 밀라노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4년제 대학과 2년제 대학의 학생인 예비 인재들의 희망과 진로에 대한 요구를 이해하고 지역의 산업수요에 부응하며 대학의 특성화에 부합시켜 차별성을 두는 효율적 인재양성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김소현(1996)의 연구에서와 같이 대학에서는 교육의 특성화를 위하여 학부나 학과내에 전공영역별 코스를 마련하여 업계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패션전문가를 양성하여야 할 것이며 아울러 학생들이 다양한 패션스페셜리스트를 지망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와 제공과 교육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현금의 지역사회의 여건을 고려해 볼 때 대구시 인근지역의 대학에서 충분한 인재Pool을 형성하고 있으므로 향후 이 인재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각 분야에 적절하게 공급하는냐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임은 틀림없다(전경태, 2000). 그러므로 새로운 국립

의류·패션관련대학의 인재양성은 기존의 대학에서 배출되고 있는 유사한 분야의 전문인력외에 현 지역 산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분야의 전문인력을 집중 육성하여 기존의 대학과 차별화 되는 특성화를 고려해 보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된다.

참고문헌

- 1) 김소현, 이태리패션교육에 관한 고찰, 복식 27, 한국복식학회, 1996, pp. 147-162.
- 2) 김순분, 대구 여성복 생산업체 디자이너들의 직무실태, 패션비즈니스, 3-4, 한국패션비즈니스학회, 1999, pp. 83-91.
- 3) 김준범, 이인자, 의류산업에서의 패션전문직종 현황에 관한 연구, 복식30, 한국복식학회, 1996, pp. 41-58.
- 4) 김혜영, 의상 및 의류학과 개설과목에 대한 중요도 인식에 관한 조사, 복식50, 한국복식학회, 2000, pp. 81-95.
- 5) 도규희외 3인, 복식산업발전을 위한 패션전문교육에 관한 연구, 복식23, 한국복식학회, 1994, pp. 225-248.
- 6) 서태일, “밀라노프로젝트”의 이해와 성공조건, 밀라노프로젝트2000세미나, 대구광역시, 2000, p. 8.
- 7) 이재덕, 대구섬유산업의 발전방향, 밀라노프로젝트 대토론회, 산업연구원, 2000
- 8) 이호정, 패션스페셜리스트, 교학연구사, 1997.
- 9) 전경태, “밀라노프로젝트” 추진과 지역대학의 참여방안, 밀라노 프로젝트2000세미나, 대구광역시, 2000, p. 68.